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의 외침, “Merry Christmas!”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10)

본당 앞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계절이 왔습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파와 신물을 준비하며 한층 들뜬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의 중심에는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합니다. (요일 2:16)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희미한 흔적만 있을 뿐,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철저히 세속적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교회의 크리스마스도 세속화되는 데에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버려냐”(갈 3:1)

크리스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좋은 날이 분명합니다. 아니 기적의 날이며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은총의 날입니다. (마 1:21)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14)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파티나 선물 교환을 빼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눅 1:19) 우리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금요찬양집회 시마다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찬양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였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총을 누려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은총을 세상의 가치와 문화, 전통과 율법에 쪼든 사람들을 향해 전하십시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날인지?’ 분명히 외치십시오. 허울뿐인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기뻐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성읍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미가 6:9~16)

은 기쁨을 기뻐하실까?(미 6:6~7) 이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다. (미 6:9) 하나님은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호와를 부르며 경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은 아닌가! 오늘날도 미가가 보았던 것과 같은 안타까운 기독교 문화(민족을 위한 특별성회, 경제 부흥을 위한 기도회 등)가 곳곳에서 성행한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시장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와 범죄를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신 8:20, 4:36) 성읍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성읍도자자들이나 또는 성읍회의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읍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신다. 상인들은 “살름!”을 외치며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상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미 6:10~11)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성읍주민들은 거짓을 말했다. (미 6:12)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사랑과 정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 아래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받고 사는 백성은 그 땅에 세워진 법과는 상관없이 무법 지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신 25:14~16) 이들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레 19:35~36 ; 겔 45:10 ; 삼하 14:26)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강포하였고 폭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시 49:6~9)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 화려한 광고, 사채, 절도,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대기업의 담합 등 어찌 모두 헤아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과 밖에서 거짓을 말한다. 그 허가 거짓되었다. 이러한 범죄의 결말은 아주 확실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이 모든 부정하고 악한 속임수, 강포, 부자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문하신다.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나도” (미 6:13) 얼마나 강한 표현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강포한 그들도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이다. (미 1:6~7 ; 사 1:4~7) 다른 사람을 향한 죄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죄를 행하는 것이다. 죄의 결말은 심각하다. 황폐하며 식량이 찢길하게 된다. 만족을 모르게 된다. (미 6:14) 씨를 뿌려도 추수가 없고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기름을 사용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미 6:15) 실망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며 황폐하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유다의 땅에서는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암 6:1,8) 저주와 멸망이 임할 것이다. (미 6:16) 유다왕국은 북이스라엘왕국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미 멸망을 당하였다. 이제 유다 역시 같은 길을 걸으며 멸망을 초라하고 말 것이다. (갈 6:7~8)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하나님에게서 사용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광을 따랐다. (왕상 16:30~33)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자. 그들은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가장 악한 왕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오늘날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주님! 주님!”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속이고 도적질하고 폭행하며 거짓말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미가 선지자는 성읍을 향하여 외쳤다. 참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한 삶을 자행하였고 결국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였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과 똑같은道を 통하여 배우고, 돌이키고 있는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자. 아멘.

JESUS: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John 10:11)

Long before the Israelites settled in Jerusalem, their livelihood included shepherding. For them it was natural to se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 a pastoral image. They intimately knew the meaning of Psalm 23:1~2,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When Jesus announced Himself as the good shepherd, the implication was clear that He is the shepherd that leads people to God. The child of Bethlehem was a true revelation of God, and is the only true way to His salvation,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Mic. 5:2) Jesus Christ is the good shepherd, and His shepherding leads us to God.

Jesus leads us to God by translating God's message. He knows His sheep, like you and me, by name. He says, "To him the doorkeeper opens, and the sheep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When he puts forth all his own, he goes ahead of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Jn. 10:3~4) When we read the Bible, the voice of Jesus leads us to God. The sheep know Him and He knows the sheep. Psalm 23:4 say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The sheep listen for the shepherd's voice for comfort and security. Jesus said, "I am the good shepherd, an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Jn. 10:14) Jesus became human, flesh and blood. If you accept by faith His incarnation, then you know Him as God. People constantly question this phenomenon, wondering how God can become human. Those that cannot believe it do not know Him. John 1:14 says,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Do you believe it? John 1:12 tells us,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how us God's glory and give us God's grac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If you believe the Bible, the word of God, then you feel the love of God.

Jesus leads us to God by personally giving us God's message. When you come to Jesus, He touches you. He knows you inside and out. He even knows how many hairs you have upon your head. Remember when Jesus was passing through Jericho

and He looked up into the sycamore tree and said, "Zaccheus, hurry and come down, for toda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Lk. 19:5~9) Jesus called Zaccheus by name, just like He called Simon Peter and asked him to "Tend My Lambs." (Jn. 21:15) Each sheep has a different character, and the shepherd knows each one. Jesus referred to Simon as Peter the rock. Our God is not abstract! On the first Christmas, God gave us His Son in infant form. This baby came from heaven for us. He helps us to understand God's love and comprehend His amazing grace. Jesus said,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nd I give eternal life to them, and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the Father's hand. I and the Father are one." (Jn. 10:27~30) You can have this love, you can feel this love,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Jesus leads us to God by His loving sacrifice. Jesus said, "I am the good shepherd, an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even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Jn. 10:14~15) Jesus voluntarily gives us His love. He was born in a Bethlehem manger, not a Jerusalem palace. He died on a cross, shedding his blood for all sinners, to give us eternal life, "I am the door; if anyone enters through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Jn. 10:9~10)

In explaining God's love for sinners, Jesus tells us this beautiful story, "What man among you, if he has a hundred sheep and has lost one of them, does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open pasture and go after the one which is lost until he finds it?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Lk. 15:4~7) When you give your life to Jesus Christ, He holds a party in heaven in your honor. This is the story of salvation. This is the meaning of Christmas. The little baby lying in the manger came down from heaven to save you. He is looking for you now. He is the good shepherd. I hope you open your heart to hear His voice, so that you can follow Him to heaven. Amen. 

선한 목자이신 예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김성관 목사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의 생계수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목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시편 23:1~2의 의미를 피부로 느낄 만큼 친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포하셨을 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참 계시였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참 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 5:2)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 10:3~4)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양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도 양들을 아십니다. 시편 23:4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 위로와 안락함을 얻기 위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10:14) 예수님은 삶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해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4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2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안과 발을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칼과 수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러고를 지나가실 때 돌무

화과나무를 올려다 보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5~9)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각각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목자는 그 하나하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실 때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아기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놀라우신 은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10:27~3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랑을 소유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희생제물이 되신다

예수님은 사랑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9~10)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일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 하라” 잃은 양을 찾아내셨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4~7)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때 주님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구유 안에 누인 작은 아기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2. 3.)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사야 9:2~7)



이שראל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했다. “혹함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에 이르러 메시아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나심을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루를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셨지만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심은 부와 명예였다. 이שראל의 정치적 회복이었다. 이것은 무려 3천년나 예수님을 기다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였다. 특히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본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누릴 명예와 권력이었다. 어둠뿐이었다. 어둠이 어둠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열정이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다.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들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7) 따라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은 밝아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참 빛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멍에에 짓눌린 죄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동시에 세상

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마 2:6,10) 빛이신 예수님은 구주시기 때문이다.(눅 2:11)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동생인 베들레헬에서 나실 구주시는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가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선포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눅 2:12) 그리고 행한 할 수 없는 놀라운 행위가 베들레헬의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에 임했다.(눅 2:13~14)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충만하였다.(요 1:14) 애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향한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임한 것이다. 이제 죄로 인하여 아들을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생겼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빛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

베들레헬 아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비추신다. 빛으로 오신 베들레헬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신다. 이 놀라운 은사는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알려주신다!” 우리의 의, 공로, 선한 인격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은송이다. 베들레헬의 어느 누구 한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은송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었다. 인간의 힘은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전적인 주님의 일하시었다. 빛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영원히 불거놓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참 기쁨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빛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가?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되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자. 내 삶을 어둠에 만드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 전통과 율법, 지식과 경험을 모두 제거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자.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 질 것이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아래 비추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찬 84장)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영원히 불거놓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참 기쁨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빛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가?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되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자. 내 삶을 어둠에 만드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 전통과 율법, 지식과 경험을 모두 제거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자.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 질 것이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아래 비추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찬 84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48

* 매주 월요일새벽7시(사목 4450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두 번째 알려 주신다 (9:30~32)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 이 예고는 두 번째 예고였다. 그리고 이어져도 한 번 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인간의 자기 관념에게 버린 바 되어.....”(막 8:31)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충격을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고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막 9:31)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예고는 달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밝히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더욱 현실적으로 자세히 기록하며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예고에서 예수님은 “인자가.....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시고”(막 10:33)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더욱 확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류구원을 위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치셨도다”(사 53:6)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반복하여 전하셨을 뿐이다.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자로 오로지 믿지 않았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שראל의 정치적 회복과 동시에 명예와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율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후에 자신이 부목되는 등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신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가치와 사상, 전통과 문화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한다. 아무리 반복해서 듣고, 연구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죄성을 진실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라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람에게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음이라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사를 깨닫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롬 4:25) 우리 삶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자. 그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할 수 있다.(롬 8:32)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막 10:45)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셨다.(왕하 21:14 ; 렘 12:9) 그럼에도 성육신하신 것은 인류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사 53:7 ; 골 3:23) 그럼에도 이 놀라운 은사를 깨닫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막 9:32) 깨닫지 못하여 질문하며 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고전 15:3) 예수님은 메시아(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믿어야 하리만 편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세상에 속한 헛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믿음으로 불리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도 영접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내 복음이 거부되고 잘 전하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심을 깨닫고 보게 되었다. 물계 날, 북쪽의 큰 도로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는 천막 집을 방문하며 사역을 하였다. 확실히 큰 길이라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매주 화요일에는 독일인 선교사가 방문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도지를 주고 찬양을 부르며 그들의 심령에 복음을 한 번 더 다져 주었다. 많은 아이들이 찬양을 잘 기억하는 것을 보고 그곳의 미래가 영적으로 밝음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아주 힘든 산길을 넘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하천을 앞두고 두 채의 집이 있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가정들이었고, 준비된 영혼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 건너 여러 집들이 보였지만, 갈 수 없었다. 여기까지만 허락하심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68세의 중풍병에 걸린 할아버지께 함께하신 권사님과 같이 기도해 드렸다. 역시 약간의 도심만 되면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단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팀이 되기를 기도하며 환경이 낯설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팀원들의 믿음과 격려로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이 선교도 역시 성령님이 함께하신 선교였음을 고백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한 운전기사에게도 감사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요, 선교지에 내려진 주님의 은총을 느꼈다.

유영근(집사, 15교구 3지역팀)

“아멘”을 외칠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또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추한 영혼은 “아멘!” 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영접기도문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 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며 “아멘, 하세요.” 하면 또 “아멘.” 합니다. 날 보는 그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눈동자만 바라보고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말로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 또 “아멘.”을 따라합니다.

그 영혼의 목에서 “아멘.”을 외칠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이분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보다 더 기뻐하셨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까? 몇 백만명의 일도 안 되겠지만 그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흙탕 길에 신발을 벗어두고 외무다리를 건너서 한참을 가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영혼을 만났습니다. 공인들에게 잡힐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 지역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름 골짜기” 빌라도 십자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 무능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도구로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믿을 주시옵소서.”

유옥련(집사, 17교구 2지역팀)

청지기칼럼



주여! 이 죄인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성장해 가면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였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 청년’이란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보냈지만, 저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주 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찬양집회 등 강단에서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이 죄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매순간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통회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으며 저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참으로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였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의 곁에 계셨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이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였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기에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 주셨고, 2009년도에는 교구와 선교위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린 여인(눅 7:38)과 같이 우리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주님! 회개하고 또 회개 하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죄인을 주님의 피 값으로 사셨으니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찬 94장)의 찬송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아멘.



김연태
(장로, 10교구장)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월)~12월 16일(화)	24교구 10지역	강두형

새가족양육부 11월 수로자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 친구가 중현교회에 참요니 같이 다니자고 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 보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임을 느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사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주인 되서서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박정숙)

♥ 전도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교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을 보이고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만영)

♥ 어느 집사님을 통해 중현교회에 오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충만을 통해 제 마음이 평안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행복과 믿음으로 가득 찬 기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현선)

♥ 어머니와 함께 다니다가 새가족양육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제가 기쁘고 슬플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신앙심도 깊어지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가족부를 통해서 잘 알지 못했던 성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고, 교회에 어머니와 같이 나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박보아)

♥ 이웃집에 사시는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중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의 죄가 주종같이 불을지라도 양털과 같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려 합니다. (왕복림)

♥ 처음엔 다나 교회에 갔었는데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현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선하시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십자가라고 아홉이기도 합니다. 교회생활도 물질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일을 지키기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화경)

♥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어느 권사님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이제는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불완전과 두려움 대신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진미파)

♥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 또 이들의 크고 작은 죄에 상관없이 모두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가시어 모든 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로 제 마음속에 있던 갈망과 고민과 욕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서순원)

♥ 영성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중현교회에 다니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몸으로 실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올린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정도식)

♥ 어느 집사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며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마음과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생활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저의 소원을 바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정서)

♥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망설였는데 어느 권사님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랑하시고 섬세하시고 정갈하며 마음 깊은 곳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갈 따뜻한 마음씨를 믿으며, 정말 사랑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 되시며 참된 자유와 구원,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경자)

♥ 1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다가 막내 여동생의 권유로 정치기후원한 참석이라는 권유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니 점점 목사님 설교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은실)

에너지절약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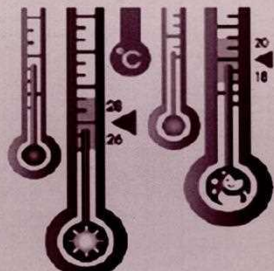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인 것에 비추어볼 때 에너지소비가 과다하다. 과도한 에너지소비는 경제에 타격이 물론만 아니라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석유와 석탄 같은 연료는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기상이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에너지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로 연신 몸을 뒹구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쌍하지 않고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였다.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겼고, 절수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다. 이에 발맞추어 교회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구축에 큰 힘을 쏟았다. 이제 태양광 온수시스템 구축까지 되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온수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현재는 절전 및 절수를 위한 설비구축을 하는 중이다. 이와 같이 절약한 비용은 고스란히 복음에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김우 4:2)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난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에너지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막간 추울지라도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서 끄며, 절수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자. 교회에 올 때 대문을 열어놓거나 커피를 하는 것도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가 불필요한 만큼 복음전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겨울철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할 것을 부려 드린다. (김우 4:17)

(다음 호에 계속)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97	김명희	3 청년1부	박미지(16)	1915	이미진	22 고등부	이성민(22)
1898	권세	25 외선부	정승옥(21)	1916	이현희	9 청년1부	김순희(18)
1899	김두희	25 외선부	한영진(17)	1917	이정훈	15 청년3부	박원희(15)
1900	한희송	7 고등부	한영진(17)	1918	정성호	23 청년1부	이현희(15)
1901	김민정	3 청년2부	조흥선(13)	1919	최진주	13 청년1부	황정희(13)
1902	김종국	20 대학부	홍승민(16)	1920	윤복준	9 청년1부	구승희(16)
1903	박진영	6 청년2부	김영준(16)	1921	김현아	20 청년1부	정현희(15)
1904	이민수	7 고등부	이현진(17)	1922	유나	16 청년1부	이진규(1)
1905	정수빈	2 초등부	김 욱(1)	1923	김지현	8 청년1부	부진희(8)
1906	최도현	8 청년2부		1924	이경수	8 대학부	이영진(22)
1907	이정영	8 청년1부		1925	권은	4 청년1부	이영진(14)
1908	박현우	18 대학부	김승옥(4)	1926	오정현	4 중등2부	임현희(4)
1909	최현우	21 고등부	정영모(21)	1927	이주하	14 청년1부	배정희(23)
1910	윤영민	8 청년2부	김희진(8)	1928	김정호	13 청년1부	부진희(8)
1911	최민정	22 중등2부	김현희(22)	1929	이영진	23 청년1부	김미연(2)
1912	이은진	6 중등2부	변미연(6)	1930	이유리	16 청년1부	이영진(22)
1913	윤규서	10 청년1부	김미연(20)	1931	송혜정	8 대학부	윤선진(1)
1914	박성하	4 고등부	정현옥(4)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환영하는 분은 본당 203호 447호 등록설문서로 보내주세요.

교회 소식

모임	세, 3월 1일
1. 정기회의 일시: 10월(수) 2주요예배 후 장소: 당회실	결혼
2. 찬양팀 일시: 10월(수) 2주요예배 후 장소: 당회실	1. 열매의 열매 일시: 10월(수) 2주요예배 후 장소: 당회실
3. 찬양팀 일시: 10월(수) 2주요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찬양팀 일시: 10월(수) 2주요예배 후 장소: 당회실

2009년 제2차 CMTC
(교회교육, 3주전, 장소: 캄발리룸)

●CMTC (선교교인)

시간	12월 7일(오늘)
18:15~19:15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19:30	제2강 선교교회 선교정책
시간	12월 14일(다음 주일)
18:15~18:45	제3강 선교지 영적 성향
18:45~19:10	제4강 복음화 전략 및 사역의 문제해결
19:10~19:30	제5강 영성기도회
시간	12월 21일(주일)
18:15~19:30	주최후원회

*수강신청: 출석 당일 15:00부터 캄발리룸 입구에 접수

●CMTC (평신도): 12월 12일(금)~12월 13일(토), 출석기회

출연복지단 직원모임

1. 모임목적: 출연복지단 직원(담당자)에게
사회복지(25세~35세)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운영방법 등
정보를 소개하기 위함

2. 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운영방법 등
정보를 소개하기 위함

3.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운영방법 등
정보를 소개하기 위함

4. 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운영방법 등
정보를 소개하기 위함

8 (월)	9 (화)	10 (수)	11 (목)	12 (금)	13 (토)	14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최재진	김준희/이정택	홍수일/정영태	유재건/양병진	강병구/조승민	김철규/김정호
설교본문	막 9:38-41	골 3:1-15	골 3:16-31	골 3:32-38	골 3:1-14	골 3:15-2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2/10	수요 II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 10:19-25) 김성관 목사	이정택	구주 탄생축하를 (초산나 찬양대)
12/10	수요 II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눅 22:24-34) 김성관 목사	이정택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선교로 찬양대)
12/12	주일예배	김성관 목사	김철규	예루살렘 찬양대 / 이주자 전도사 가족 / 풍문 주주
12/14	주일 I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요 10:11) 윤용호 목사	박준식	예배 전 찬양
12/14	주일 II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요 10:11) 김준희 목사	하종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12/14	주일 III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요 10:11) 김성관 목사	김철규	선진길
12/14	주일 IV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요 10:11) 이계영 목사	정종현	이성길
12/14	주일 V	선한 목자이신 예수 (요 10:11) 유현철 목사	박용현	이성길
12/14	주일예배	그리스도의 회개 (딤후 2:14) 김성관 목사	양재호	최경하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회복동생들 예배)	본당
V	오전 3:00	본당
주일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오전 11:00 (11월 2주) 7:00	본당
금요찬양회	오전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초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동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동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동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집회 안내

구분	시간	차량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오전 10:30	금요일출발 2주 본당 앞 출발

구분	시간	장소
청년 1부	오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2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3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4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전 12:15	갈릴리룸
사랑부	오전 11:00	복자전도회
예배마루	오전 9:00(학생)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타자부	(주) 오전 8:30~9:00 (월) 오전 6:30~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전 11:15	베다니 홀
국회국립연교부	오전 12:00	아벨 홀
출연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연교부	주간교육	출연복지관

집사의 속회모임
일시: 12월 7일(오늘) 15:20
대상: 안수집사 전원(말씀)
장소: 제2교육관 307호

제1교육관 학생
일시: 12월 7일(오늘) 12:10
주제: 복음화 전략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대상: 영아부~중동부 교사 전원
장소: 제2교육관 507호

전도회 회장단
일시: 12월 7일(오늘)~12월 8일(주일) 매주 일 15:10, 제2교육관 407호
대상: 남녀 전도회장, 부회장, 전도부장, 전도위원회 실행위원

성령강화 연합 전야예배 (매시)
일시: 12월 19일 19:00(금요일)~20일(토) 14:00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찬양: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총회 교회주변 전도
일시: 여전도회 12월 17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2월 20일(토) 14:00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회화~301호 2회화~307호 3회화~401호 4회화~407호

리 주 외 /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외 / 할렘루아 제2여성중창단(지도: 정정희)
네 외 / 아멘 여성중창단(지도: 구자은)
엘 외 / 벨렘 오케스트라
중창단 / 가브리엘 찬양대 / 20교구

2009년 주일교구별 수요요영성훈련 장소

교구	교구명	수요영성훈련	수요영성훈련
1	제1교구	제1교구 304호	제1교구 405호
2	제2교구	제2교구 305호	제2교구 406호
3	제3교구	제3교구 306호	제3교구 407호
4	제4교구	제4교구 307호	제4교구 408호
5	제5교구	제5교구 308호	제5교구 409호
6	제6교구	제6교구 309호	제6교구 410호
7	제7교구	제7교구 310호	제7교구 411호
8	제8교구	제8교구 311호	제8교구 412호
9	제9교구	제9교구 312호	제9교구 413호
10	제10교구	제10교구 313호	제10교구 414호
11	제11교구	제11교구 314호	제11교구 415호
12	제12교구	제12교구 315호	제12교구 416호

12월 출현 기도의 향

① 교회의 방패와 상감(양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치소(렘 2:22)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③ 모든 위원회와 성서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사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렘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 보배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⑤ 1·1·1 전도와 총회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⑦ 출현의 재단(유지·동산·복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완료된, 남몰시 설교회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회: 본당 113호

심·기·회·분·들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초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동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동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동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전 5:30	제2교육관 4층